

고은 불교대학 소설



비몽사몽

여기는 다시 무욕도. 문득 그녀는 소식에게서 한번도 이성(理性)에 닿아본 적 없는 숙녀의 그 비릿한 체취를 맡았다. 그런 싱그러운 체녀의 체취 따위에 걸리노라면 그녀도 벌써 나이가 지긋해져 있는 것인지 모른다.

지난 날의 제물포 저자에 퍼들 때의 실성한 남자, 이 사람 저 사람으로부터 사담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던 머리 위 검붉이 붙어있는 남자의 자취는 이제 그녀의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그녀대로 무르익은 젊은 여자의 관능이 생긴 무뎠음으로 가려져졌거니와 그런 관능과 함께 깊은 수렁의 기운이 풍겨서 어떤 남자로 한부로 다가갈 수 없게 되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온 것이다. 누가 그녀에게 당신은 어디로부터 왔는가(什麼處來)라고 묻지도 않았으며 그녀가 무욕도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묻지도 않았던 세월이었다.

그녀에게는 인담도 너무 잘 아는 사이여서 마치 인담이 없는 것처럼 여겨졌고 지난 날이나 요즘이나 이 도량에서 그녀의 웃자락이 걸린 때가 없었다. 그렇게도 오래동안 들어온 피도소리도 이제 그녀의 귓가를 건드리지 않게 되었다.

그런데 오늘은 그녀의 열풍선을 확실하게 다룬 공부하는 소식행자에게서 문득 한 순찰의 등짐(鎗筒)을 냄새맡게 된 것이었다.

"내 육근(六根)이 아직도 이렇게 사납다니... 원... 벌말이기도 하지"라고 그녀

자신을 나무랐다. 그것은 마치 백암록(碧巖錄)의 한문대에 있는 '어느 곳에 가더라도 없애진다(無念成淨)'의 말이 어느덧 그녀 앞에 떨어진 것 같은 느낌도 들지 않는 바가 아니었다.

며칠전 아산현감의 소식인 미명(彌鳴)이 팔과 잡곡을 훔 두목짜리 배에 가득 싣고 왔었다. 그녀는 본디 은암은현의 16세 기생이었는데 현감의 눈에 들어 소식로 들어와서 동헌의 시간보다 그녀와의 시간으로 소임을 다하게 되었다.

눈썹이 운다는 뜻의 이를 못지않게 그 청초가련과 요염이 뒤섞인 기생 앞에서 중년의 현감은 비로소 아름다움을 알게 되었다. 현감은 그녀를 품에 안고

산이나 덕숭산이 아니거든... 그렇지... 저 바다 위 무욕도의 암자야라도 건너가버리고 싶어.

이런 뉘그러를 지구 일삼았다. 이제 무욕도는 서산은 고사하고 아산 안성 공주 그리고 수원성 안까지도 알려져 뜻있는 사람들의 수렁에 비쳐지고 있었다.

바로 가설로 알려진 첫날 온양을 지나 가던 수월이라는 권력승이 그녀가 있는 술집 주모에게 극락과 지옥을 가르쳐주고 갔을 때부터 그녀는 불발에 기울어졌던 것이다.

"스님, 어디에 극락이 있습니까? 정말 서쪽으로 서쪽으로 가던 극락정토가 있는 것입니까?"

"한편 가보시지요."

이 대답이 바로 수월의 심경이 짙어 있는 대답이었다.

"그럼 지옥은 어디 있습니까? 지옥이 있다면 그곳으로 가야 할 인간들이 너무 많은데..."



109

"우리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도리천의 불이와 합두가 묻자 우녀의 등골에는 땀이...

보시오. 현감의 애첩 미명은 공암미를 쫓 빈 배로 돌아가며 언제까지나 무욕도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런 미명이 왔다 간 뒤 그 미명의 아름다움 때문이었는지 차맛이 아주 어린 차일을 뜯은 것에서 우어나듯 여자도 잠음으로 그 아름다움의 절정을 이룬다는 생각이 우녀에게 잠깐 깃들었던 것이다.

바로 그 생각이 이어져서 이제까지 몰라보았던 소식행자의 그 숙녀 처녀의 체취까지 맡게 된 것인지 모른다.

그녀는 소식을 불렀다. "석행자! 요새 판 생각을 하고 있지?"

우녀의 말 끝에는 바늘이 달려있는 것 같았다. 그동안 이렇게 차가운 말투는 없었던 것이다.

그 말투에서 헤아릴 길이 없었던지 소식이 그 보름달 같은 얼굴을 대변에 분홍빛으로 물들이며 고개를 떨구었다. 좀더 자세히 살펴본다면 그녀의 온몸이 옷 속에서 아득히 떨고 있었다.

우녀는 정확하였다. 현감의 소실이 다녀간 뒤 소식행자의 마음은 약간 흔들리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살고 있는 이곳이 너무 단조롭고 답답한 느낌이 일어난 것과 함께 그녀도 현감의 여자처럼 욕지로 나가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일어났던 것이다.

바로 그것을 우녀가 지적한 것이어서 그녀는 어쩔 줄 몰랐다.

하지만 그런 소식을 우녀는 바로 들었다. "괜찮아... 나도 석행자처럼 이런저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

우녀는 소식을 마치 언니가 동생을 비바람 속에서 깨우는 것처럼 안아보았다. "좋은 때다... 좋은 도량이다... 이런 도량에 부처를 앉혀야겠지... 우리 석행자!"

처럼 될 수 있겠지?" 라고 소식이 한숨을 내쉬었다.

그날밤이 다하는 새벽녘이었다. 우녀는 깊은 잠이 차츰 없는 데로 옮겨지더니 비몽사몽의 상태로 되었다.

어느새 소식도 새근거리며 잘 자고 있었다.

우녀의 비몽사몽 가운데 바로 도리천의 합두와 불이 나타났다.

그것은 크게 보아 한 세계인 육계안에 도리천이 있고 그 아래의 7산중에 밖의 바다에 떠있는 삼부주의 한문대에 있는 무욕도가 있는 것은 불멸만한 일도 아니다.

하지만 수미산 중턱의 하늘 속에 떠있는 육계와 저 아래 바다 위에 떠있는 육계는 그야말로 서로 직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게 멀고 먼 거린 것이다.

그런 도리천에 머물고 있는 지난날의 두 사람을 우녀의 비몽사몽은 만나고 있었다. 꿈이란 아케 먼 곳이 그자 먼 곳일 뿐이겠는가, 아무리 멀고 먼 곳일지라도 바로 곁에 있어있는 친구의 곳일 수 있는 것이 꿈속이 아닌가.

우녀는 합두를 불렀다. 합두가 불이와 구름 속의 장난에 열중해 있다가 우녀의 목소리를 듣고 합두 우녀쪽의 무욕도를 내려다보는 것이었다.

"어머나... 우녀보살님!" 하고 합두가 무척 놀라며 반가워 하였다.

"어머나 어머나 우녀보살님! 얼마만이 어요?"

합두는 미구 말을 쏟아보냈다. 우녀도 그런 아름다운 합두의 목소리에 천상의 향기가 물어 오는 것 때문에 몹시 기뻐했다.

하지만 그녀들 사이는 너무 멀기 때문에 손을 잡을 수도 없고 서로 열싸인을 수도 없었다.

"윤회는 억겁의 전생부터 억겁의 내생으로 이어지는 공부"

있어도 그것으로 모자라 '내 미명아' '내 미명아' 라고 부르기를 마다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런 애지중지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그녀는 한편으로 늘 구멍이 나서 그 구멍으로 찬바람이 들어오는 아픈한 공허감을 어이할 수 없었다.

그녀는 현감의 배려로 비단도 보석도 자주 쌓여갔다.

어디서 이런 귀한 물건이 생겼느냐고 묻지 않았다. 그것이야 아산현이나 그곳에 인접한 곳에서 하나를 걸어오는 것인지 모를 리 없기 때문이다.

"내가... 아직 어린 내가 세상의 물건을 빼앗는 씨앗이 될 바에는... 차라리 가야

"저기도 가보아야 할 일이지요." 그러자 주모의 기동서방인 탈보영감이 나서서 버럭 화를 냈다.

"이 사람이 증인가? 못 먹은 거지인가?" 이 말을 내뱉자마자 수월의 웃음을 움켜잡아 저만치 내던지는 것이었다. 그런데 정작 저쪽에 나가떨어진 사람은 수월이 아니라 탈보영감이었다.

수월이 가만히 말하였다. "저기가 지옥이라고 할만 하지요." 탈보영감이 수월에게 와서 "소인이 그만 도인을 못알아보았습니다" 하고 누우치는 것이었다. 그러자 "여기가 극락인지 모르겠습니다."

바다 위에 떠있는 절! 그것만이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어서 끝내 현감이 주는 보석 따위를 팔아 공암미로 장만해서 배 가득히 싣고 건너갈 수 있었던 것이다.

미명은 우녀 앞에서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울음을 울었다. 그녀에게는 우녀야말로 모든 것을 털어놓은 뒤 의지하고 싶은 그런 대상이었다.

"소침도 여기서 삭발 수도로 살고 싶어요."

"때가 익으면 그렇게 되겠지요."

"때가 익을까요? 소침과 같은 신세도."

"이미 익기 시작했으니... 좀더 견디어

"....."

"자 들어가자... 오늘은 영불따위 그만 두고 일찍 쉬자..."

두 여자는 그들의 처소로 들어갔다. 문은 문을 바른 종이를 뜯어내지 않고 그 뒤에 지구 바르고 발라서 마치 얽은 관자처럼 두꺼워졌다. 그런 문을 달으면 방안은 어둑어둑하였다.

밤이 이슬하지 않은 시각인데 두사람은 잠자리에 누웠다. 소식은 아직 잠들지 않았다.

그런데 우녀는 비로 잠이 들었다. "우리 보살님께서는 잠드실 때도 부처님 안고 잠드시지... 나는 언제나 보살님

그런 합두 뒤에서, 이번에는 불이가 제 모습을 나타냈다. "우녀보살님! 참 오래동안 뵈지 못했습니다. 윤회는 쉬는 법이 없고 쉬임없이 떠도는 윤회의 세상은 정녕 끝이 없습니다."

우녀가 말하였다. "그런 윤회가 억겁의 전생부터 억겁의 내생으로 이어지는 공부입니다."

"우리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우녀가 이 질문에 등골에 땀이 나며 대답하였다. "이제 곧..."

그림 · 조향숙

현대불교

생활광고

본관은 독자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 꾸며지는 생활광고입니다. 희소의 비움, 최대의 효과 현대불교 생활광고관에서 받으십시오.

문의 (02)737-8881 (광고국) 팩스 (02)737-0697

보리수

취급 각종수입항, 염주 일체 품목 불교약세사리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화:778-5345, 팩스:777-1917

포교당 안내(하실분)

- 위치 : 도봉구 수유리
- 보증금 : 3천만원
- 시설비 : 2천만원(월세30만원) ※ 상담후 결정가능

전화 : 3492-4678

공부하실 비구니스님을 모집합니다

작은 암자가 비어 있는 관제로 조용히 공부하실 비구니 스님을 모집합니다.

- 방3칸, 법당, 산신각

충남 서천군 문성면 복산리 **웅주암** 연락처 : 0459-953-1190

20년 전통의 모범법소

여의도 **소망 결혼 상담소** (전화 14호)

한 마음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해나갈 평생 반려자를 찾자님께 맺어드리겠습니다.

담당 김춘미 합장

- 초혼 : 의사, 변호사, 약사, 관·검사, 행정고시 합격자
- 재혼 : 전문
- 영리도 결혼 : 공개
- 책임결혼

문의 | 주간 (02)783-1777 전화 | 야간 (0343)47-1046

시찰 운영하실 분

스님 신병상의 이유로 포교원을 급히 정리 하고자 하오니 포교에 뜻이 있는 스님은 연락 바랍니다.

연락처

032-519-3597 514-1616

神祕한 東洋哲學

신생아 작명 역학 개인지도 선남·선녀궁합, 학생적성

☎ 738-2045, 2046 현대 불교 신문사

韓國民俗哲學研究所

전문시술원

좌골 신경통 (3회급)

張三洙 합장

포교당 안내

위치 : 부산 온천동 최요지 평수 : 36평

- 보증금 1500만원, 월세 60만원
- 시설비·비품대 가격결정가능

연락처 : 051)514-0331~2

간경화 · 정신질환

神病, 病名없는 病, 완치보장

불교 0552-82-8128, 8118 사찰 H.P 011-559-8128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하림리 보은암

시찰안내

▷ 위치 : 충남 논산시 연산면 송경리

▷ 법당 : 후조3동, 오사2동(25평, 조림식 5동)

▷ 대지 : 사용면적 3000평

▷ 특징 : 대천, 논산 중간지점 산세수려하고 인수불나을 사찰장전 30년이상됨

▷ 가격 : 1억5천(가격조정가능)

전화 : 0461)34-1742 · 011-425-1362

氣 치료

- 병마로 고생하시는 사부대중(스님도 환영) 불치병, 난치병, 고혈압, 심장병, 속병, 간병, 오래된 두통, 부인병, 전신 마비, 수족말림, 초초불안, 공포증, 정신이상(精神), 스트레스로 인한 모든병 기적같이 고쳐짐.
- 교통사고 후유증, 수술 후유증 및 장애자 현대의학으로 치료 불가능.
- 불사후 아픈 스님 상담

충남 연기군 서면 와촌리 80-1 (조치원역에서 5분거리) 광불사

주지 대한 합장 0415-63-0749

탁자, 담집, 법상, 문적, 불교조각

주요불사업적

- 함진(대전시) : 대적광전, 법상, 경상
- 의정사(대전시) : 대웅전, 수미단, 단립 문적
- 서울(대전시) : 법상, 수미단, 문적, 목련
- 용인(당포시) : 대웅전 문적
- 화진(당포시) : 대웅전 명부전 문적
- 충주(충주시) : 대웅전 수미단, 법상, 경사
- 마산(진주시) : 대웅전 문적, 단립
- 포천(양천시) : 대웅전 문적, 단립
- 단양(원주시) : 대웅전수미단, 단립, 경사
- 서울(학원시) : 회관 문적, 그의 다수 사찰

대진(전송)공예사

번 드론 011-282-4009 지 택 02-248-4609 공 방 0346-571-9538 호 줄 012-210-1401

불교공예

본 불교공예에서는 20년 전통의 신공과 기술로써 각 사찰의 합당을 장엄하여 현 년을 기리 남을 정성을 다 하여 봉사하겠습니다.

대표 임태복 합장

진도 양계사 : 사찰전, 불단, 속주 구복함 : 천룡전, 단립, 산신각, 문적

제주도 원자사 : 불단, 단립, 법상문적

실악산 오대암 : 천룡전

삼각산 연복사 : 천룡전, 단립, 동구포동 원통사 : 불단, 문적

팔고래원 : 불단, 문적, 경사

양주 보은정사 : 불단

안양 약수암 : 불단, 단립, 천룡전 다수 사찰 불사

연락처 : (0346)553-6480